

우리 농업 어디로 가야하나?

■ 권용대/충남대학교 교수

우 리 농업은 지금 유례없는 변혁기의 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수입 농산물 속에서 수많은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한 채 밭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산업으로서의 농업 비중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미래의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혁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변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살길을 찾을 수 있다. 올바른 변신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농업을 위기와 혼돈으로 몰고 가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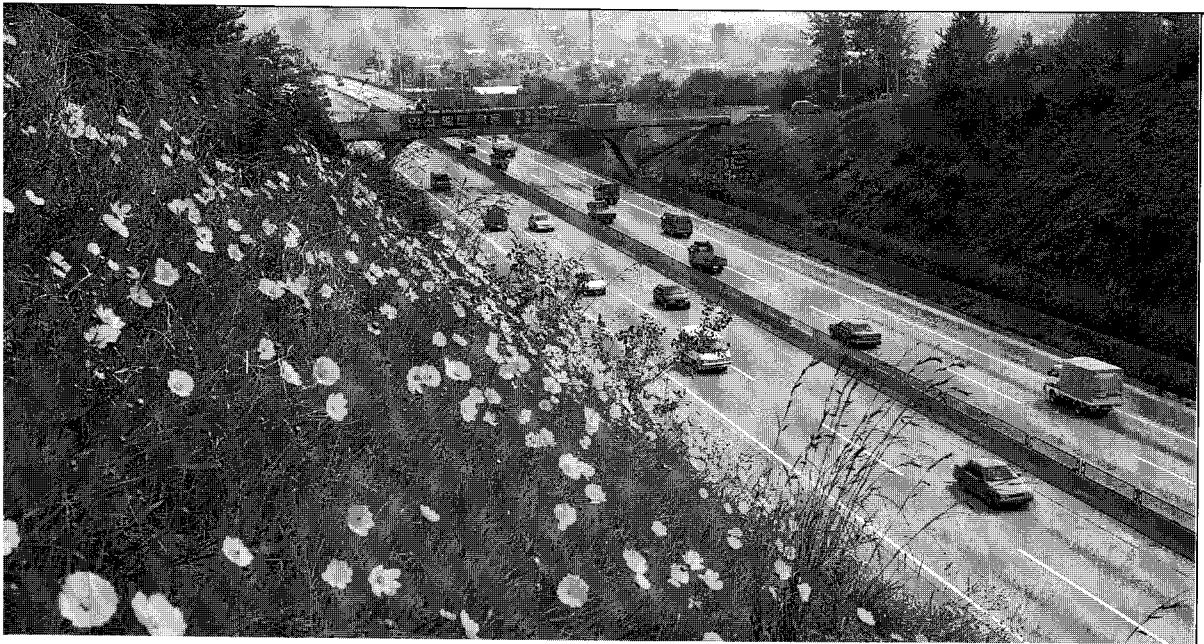
농업, 만성적 구조조정 거치는 산업

첫째는 세계화이다. 세계화란 기업들이 국가간의 장벽을 넘어 세계의 모든 시장을 상대로 무한 경쟁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시대를

말한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불안해하는 농업 문제의 근원도 따지고 보면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충격파로부터 유래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뉴라운드 협상은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UR농산물 협상시에는 국내의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화 방식으로 개방에 따른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뉴라운드 협상은 UR 때 설정된 원칙을 기준으로 이를 얼마만큼 더 감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들로서는 과거의 관세화와 같은 국내 농업의 보호장치를 더 이상 확보할 여지가 없어진 것이다.

뉴라운드 무역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이 고관세 농산물이 다. 마늘, 고추, 양파, 참깨 등 고율의 관세로 버텨오던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보조의 실질적



인 감축에 따라 쌀, 보리 등의 수매량이 대폭 줄어들고 UR 협상때 부여받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농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한편 쌀에 대한 관세화 예외의 관철이 미지수이다. 뉴라운드 출범과 쌀 재협상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나라는 UR 협정에 따라 뉴라운드와 관계없이 2004년 쌀 재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04년의 MMA물량인 4%는 그대로 유지한 채 300% 안팎의 관세만 부과하는 수준에서 쌀 시장의 개방을 수용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다.

그밖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금년에 체결한 한·칠레 FTA 협정이 국내 농가들에 미칠 영향도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계화가 진전 될수록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농업은 생존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 다가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하겠다.

둘째로 우리 농업을 변혁시키는 근원으로서 신 농업기술 혁명의 도래이다. 유전자 공학, 전자공학의 눈부신 발달은 미래의 농업과 농촌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나라가 겪어온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농업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농업생산성은 향상되지만 반면에 농업소득은 정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는 농민들은 농사일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농업인구와 농업GDP의 축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세계 최강의 농업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20세기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농업인구는 40%에 육박했다. 그러나 대형 트랙터와 콤바인, 농약과 비료산업의 획기적인 발달로 1990년대에 미국의 농업인구는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4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가 채 되지 않는다. 미래에는 더욱 농

“

‘농촌’ 환산 어려운 삶의 가치 내재 · 재건축할 시간 많지 않아
知己 · 知彼 농업 하고 정부 · 농민단체 · 학계간 정책아이디어 도출해야

”

업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보아 미국의 농업인구는 향후 20년 내에 100만명 이하 시대로 접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장경쟁에서 탈락한 미국의 농민들이 농사일을 포기하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농업기술이 향상되면서 농가 인구는 1970년에 14,422천명에서 2001년 말 현재 3,933천명으로서 총인구의 8.3%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10년 후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는 100만명 이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의 4분의 3은 어떤 식으로든지 농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농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력, 품질 차별화 · 브랜드 농산물 생산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 농업의 실상을 아는 知己와 외부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知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우리 농업에 대한 知己를 보자. 지금 우리의 형편은 쌀, 과일, 채소, 축산물 할 것 없이 남아돌면 남았지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제값 받고 팔기 어렵고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은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때가 더 많으리라는 의미이다. 즉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숙명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현실이 자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농업 외부 환경에 대한 지피는 무엇인가? UR 협상 이전에는 농민들이 국내 시장에만 신경을 쓰면 되었으나 지금은 수입 농산물의 동향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비는 너무 높아 외국산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동안 정부가 관세나 쿼터제를 활용하여 농산물 수입을 억제해 왔으나 뉴라운드가 발효되면 이러한 보호막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수입 개방은 국내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선 덤핑공세를 당하는 셈이다. 값싼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피농업이고 실로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예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앞서서 당하게 되어 있다. 농민들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신기술을 배워 생산성을 높이든지 농산물을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농사를 제대

로 지으려면 남보다 앞서가는 경영감각과 고도의 영농기술을 갖추어야 하게 되었다. 축산 분야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앞으로 채소, 과일농사도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며 최후에는 쌀농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농산물은 이제 가격만 가지고 승부하기에는 벽찬 실정이다. 가격외의 다른 속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신도불이 농산물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유통시장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제로 판매하는 일대일 마케팅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품질을 차별화하고 브랜드를 가진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수입 농산물과의 시장 경쟁에서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업과 농촌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모 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민들의 90%가 돈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농촌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농촌의 실정을 잘 모르고 낭만적인 감정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농촌생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도시의 환경공해와 주거여건이 더욱 나빠지게 되면 도시민들이 인근 농촌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유럽,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업·농촌’ 생존 위한 실질방법 모색해야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은 농사로 돈벌려고 사는 부류가 아니다. 이들은 농촌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오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민들의 농촌이주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가시화 되리라고 본다.

교통망이 발달한 요즈음 대부분의 농촌이 인근 도시와 1시간내 이동권에 들어가고 있다. 농촌 정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추어질 경우 도시민들에게 농촌은 매력적인 주거지 또는 사업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비춰질 것이다. 유럽과 일본을 가보면 도시를 탈출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의 도시화 가진 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그곳은 도시민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농촌에 사는 주민들은 부업농가, 도시 통근형 재 농촌가구 등이 어우러진 전원마을을 형성하여 바람직한 농촌 커뮤니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농업과 농촌을 재건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제는 농업인, 정부, 학계, 산업계가 허상을 버리고 격의 없는 솔직한 토의와 여론수렴을 거쳐서 농업과 농촌의 실질적인 생존을 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진지하게 모색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농업의 축소과정이 원활하고 마찰 없이 진행되도록 농가소득의 보호, 농산물의 수급 안정, 농업 경쟁력의 유지 등을 위해 정부, 농민단체, 학계 간에 정교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이의 세심한 집행이 요구되는 것이다. **농약정보**